

# 무안 A어린이집, 교사들에 '불투명 금전 각출' 논란

급식비 등 외 상조비 명목 각출 문제 커지자 교사들에 되돌려줘

무안군 한 어린이집이 교사들에게 매달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은 상조비 명목이었다고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강요에 의한 거출이라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무안군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교사 24명에 식대5만원, 운영비 1만원 명목으로 매월 6만원씩 월 140만원을 거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교사 모친상 당시 교사들로부터 상조비 목적으로 3만원을 별도로 거출했다.

이후 B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개인 통장으로 상조금액을 다시 돌려줬다.

C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매달 25일 걷는 6만원은 상조비가 아닌 급식비 5만원과 회비 1만원이었다"며 "B교사 모친상 때 주임교사가 별도로 상조비 3만원을 걷

었는데 당시 모인 상조비 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후 B교사가 개인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줬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유출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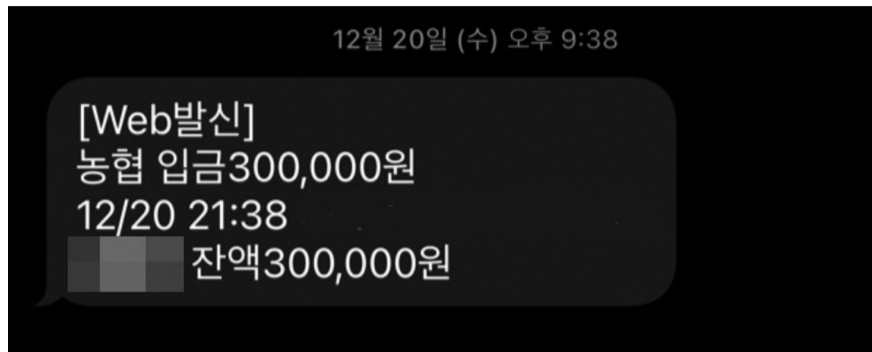
지난해 10월28일 어린이집 측은 모 교사에게 '10월달 급식비 및 회비가 미납됐다'며 확인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도 A어린이집은 그동안 걷은 돈은 상조비 명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한 점은 지난 10월 교사 모친상에 주임선생이 교사들에 별도로 3만원 상조비를 목적으로 거출한 것. 어린이집 측은 "상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추가로 더 걷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오후 9시에 교사들 개인통장으로 근무개월 수만큼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가 교사들 통장으로 주임교사에 상조비를 거출한 금액을 돌려준 것은 개인정보유출이 아닌 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급식비 및 회비를 어린이집에 입금했다면 급식비를 입금으로 해야



A어린이집측이 각출한 비용을 교사들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준 내역.

하고 회비 지출 또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의심되는 점은 이뿐이 아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교사들 간 갈등의 불씨만 커져가는 모양새다.

제보자 D씨는 "황령인지 아닌지. 어린이집 강요에 의한 거출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유치원을 국·도비, 군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안군청측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상조비로 걷은 금액이기에 이걸 강요에 의한 거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잘못을 시인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교사들 개인의 의견들을 수렴해 명확한 필요에 의할때 금전을 거출하도록 하겠다"며 "꼼꼼한 금전·회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무안 김행인 기자

해남읍 중심도로 지중화 착공 '전봇대 없는 도심' 만든다

해남군은 해남읍 중심도로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해남읍 북부순환로 해남군청 사거리~주공1차아파트~서림공원~구광주은행사거리~중앙1로(천변교) 구간 양방향 1810m이다.

내년 상반기 완료될 목표로 실시설계 및 공법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북부순환로와 중앙1로는 양쪽으로 학교·상가가 밀집돼 있고, 읍내에서도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시내 중심가의 미관 개선은 물론 학생 등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국제크루즈 '씨번 씨전호' 입항 여수항, 승객·승무원 870명 탑승

여수항에 4일 오전 미국 선사 '씨번 씨전호'가 입항했다.

'씨번 씨전호'는 3만 톤급, 길이 198m에 달하는 럭셔리 국제크루즈로, 승객 540명과 승무원 330명 등 총 870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여수에서 9시간을 머물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여수시는 입항 기념행사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이날 크루즈 입항을 직접 맞이한 김종기 부시장은 "새봄맞이 국제크루즈 입항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수가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남은 입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강진 청자도요지 유채꽃 활짝 관광객들에 볼거리 제공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 일원에 때 아닌 유채꽃이 장관을 이뤘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에서 대구면과 마량면으로 이어지는 23번 국도에는 가우도 입구와 청자박물관 인근에 유채식재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중 청자박물관 남쪽 도로변에 유채꽃이 만개해 통행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대구면 유채는 완전히 만개해 진노란색 물결의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유채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채 조기 개화를 위해 제주도만 유통되고 있는 '산동채'라는 종자를 구입해 지난해 가을 식재해 일반 유채에 비해 한달 정도 빠른 개화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 일원에 유채꽃이 활짝 피 장관을 이뤘다.

강진군 제공

"일자리 1만6000개 창출" 여수시, 올 일자리대책 공시

여수시가 올해 일자리 1만5913개 창출과 고용률 69%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

4일 여수시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분야별 일자리 1만 5248개(목표 대비 122%) 창출 및 고용률 69%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경제정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 전망 등을 반영했다.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융합 일자리 행정혁신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일자리 균형 성장 △시민중심 일자리 복지도시 구현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워 30개 부서가 1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년도와 달리 참여부서가 6개로 증가해 8개 실천 과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6여수세계박람회, 투자유치, 미래산업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여수형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시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일당 마찰 해결" 나주시, 농촌 적정 인건비 11만원 제시

농촌인력 평년 임금 등 고려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하고 일당 책정 시비거리 해소를 위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시한 적정 인건비는 최근 열린 '2024년 나주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노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 강도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나주시의회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외국인 농업인력 적정 임금은 11만원 이하로 지급하십시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었다가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나주에선 한 치 앞을 못 본 이러한 홍보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줄면서 일당이 14만~15만원까지 치솟아 되려 농가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관계자, 유료 직업소개업소, 노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시안을 마련했다.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적정 임금 책정 과정에선 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불성실 근로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안상현 부시장(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장)은 "농촌인력 인건비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모두가 잘 사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전남 농업박물관 '주말 농부장터' 6일 개장

지역농업인 농산물 판로 확대

전남도 농업박물관이 올 들어 처음으로 '주말농부장터'를 6일 개장한다.

주말농부장터는 지역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박물관 인근 지역 주민과 소통, 영산호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부터 실시한 도 농업박물관의 독창적 '관광형 장터'다.

지난해까지 봄철과 가을철 각 4차례씩 겨우 운영했고, 올해는 4월과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개장할 예정이다.

영암, 무안 등 전남지역 농민과 다문화 가정, 스마트팜, 사회적경제 등 20여 조

합과 기업 등이 참석해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부모와 함께 어린이를 위해 '머그컵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행사와 투호 등 민속놀이도 함께 할 계획이다. 첫 장인 6일 봄맞이 화전놀이도 치러진다.

박간재 기자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급 진도군, 20만~50만원

진도군은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에서 초·중·고 입학하는 1학년생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여건 강화와 관외 학생 유입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지급한 고교 신입생 입학 축하금(20만원)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학금 수혜자 확대에 따라 올해는 초·중 학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입학생의 보호자인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군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아버지날인 5월8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백재현 기자